

소득격차 더 벌어졌다…전남 자산 규모 ‘최하위’

■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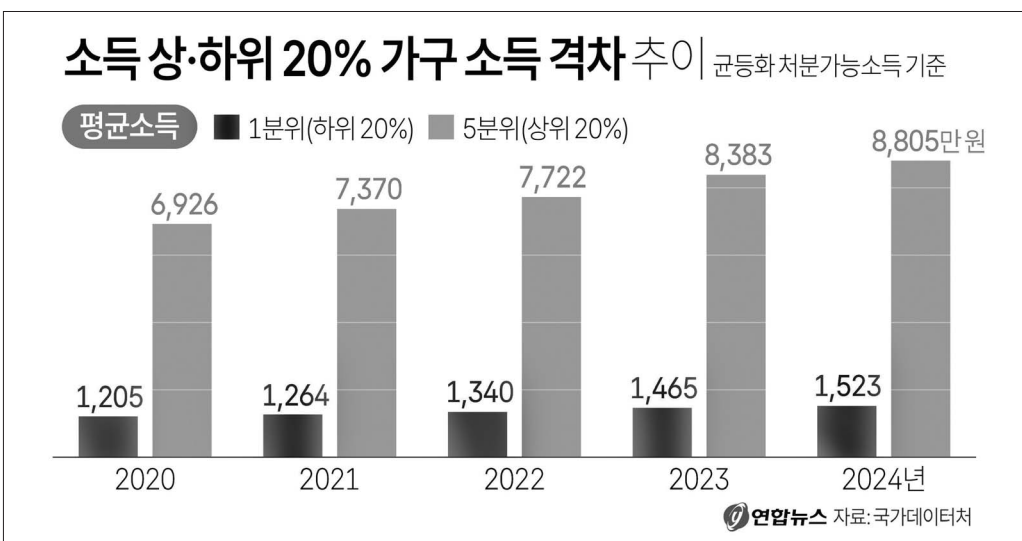
3억6754만원…광주 평균 밑돌아

임대보증금 증가율 ‘최고치 경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내 자산이 전반적으로 늘었지만 광주와 전남의 가구 자산 수준은 전국 평균과의 격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국가데이터처·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남의 가구당 자산은 3억6754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광주는 4억2387만원으로 전국 평균 자산(5억6678만원)을 크게 밑돌았다. 두 지역 모두 지난해보다 자산이 증가하긴 했지만, 서울(8억3649만원), 세종(7억5211만원), 경기(6억8716만원) 등



수도권·행정도시와의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

순자산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전남의 가구당 순자산은 3억1640만원으로 인천(3억437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고, 광주(3억5657만원)

역시 전국 평균(4억7144만원)에 크게 못 미쳤다.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지난해 3월 말 5억4022만원에서 올해 5억6678만원으로 2655만원(4.9%) 증가했다. 실물자산은 4억2988만원으로

5.8%, 금융자산은 1억3690만원으로 2.3% 늘었다. 특히 실물자산 가운데 거주 주택 외 부동산이 7.5% 증가해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전체 자산 중 실물 자산 비중은 75.8%로 1년 전보다 0.6%p 높아졌다.

연령대별로는 50대 가구의 평균 자산이 6억620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6억2714만원), 60세 이상(6억95만원), 39세 이하(3억1498만원) 순이었다.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전체 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이 올라가는 경향도 확인됐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 가구 자산이 7억19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용근로자(6억1918만원), 무직·기타(4억7958만원), 임시·일용근로자(2억7184만원) 순이었다.

소득분배 상황은 악화했다.

상·하위 20%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것이다. 지난해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소득이 5.78배 더 많다는 뜻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9534만원으로, 작년 3월 말(9128만원)보다 406만원(4.4%) 증가했다.

이 중 금융부채는 6795만원으로 2.4%, 임대보증금은 2739만원으로 10.0% 각각 증가했다. 임대보증금 증가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금융부채 중에서는 담보대출이 5565만원으로 5.5% 늘어났지만, 신용대출은 833만원으로 11.9% 줄었다.

부채를 보유한 가구 비율은 58.9%로, 지난해보다 1.8%p 감소했다.

소득 분위별로는 소득 1분위의 평균 부채가 1669만원으로 15.5%, 2분위의 평균 부채가 4388만원으로 5.1% 각각 감소했다.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평균 부채가 1억432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억1044만원), 39세 이하(9548만원), 60세 이상(6504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전남지방우정청은 최근 광주 내 자립준비청년 20명에게 1500만원 상당의 자립키트를 후원했다.

전남우정청, 자립준비청년 첫 출발 응원

이불세트·의약품 등 키트 후원

전남지방우정청은 최근 광주 내 자립준비청년 20명에게 1500만원 상당의 자립키트를 후원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퇴소 후 독립을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첫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립키트는 전남지방우정청 직원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통해 마련됐으며 이불세트, 소형가전, 주방용품, 생필품, 의약품 등 10여종으로 구성됐다.

전남우정청 임직원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 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자립키트를 직접 포장하며 자립준비청년을 응원했다. 자립키트는 광주시자립지원전담기관, 광주영신원, 용진육아원의 자립준비청년 2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기홍 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홀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직원의 따뜻한 정과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노동청, 동절기 건설현장 점검

위험요인 개선 지도…산재예방 활동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5일까지 공공기관 발주 현장을 중심으로 동절기 건설현장에 대한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동절기에 접어들어 붕괴·질식·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주요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시기적 특성을 고려한 집중점검을 통해 산재 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주노동청은 지역 내 공공기관 발주 현장 및 동절기 건설현장 3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건설현장 두 곳을 불시 방문해 5대 중대재해 위험요인, 발주자의 주요 책무 및 동절기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승강기 피트 구간 내 추락 방호조치 미흡, 거푸집 동바리 수직도 미준수, 계단설 비계 안전간격 설치 미흡, 작업장소 내 조도 확보 미흡 등을 적발, 개선방안을 지도했다.

이도영 광주노동청장은 “공공기관 발주 현장은 건설공사 최상위 의사 결정권자인 발주처의 노력에 따라 위험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의 주요 책무를 철저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최근 ‘2025 AI광주미래교육박람회’에서 ‘광주 소프트웨어 미래채용사업’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GICON, SW미래채움 홍보관 운영 호응

‘AI 광주 미래 교육 박람회’서 AI·SW 교육 역량 선택

(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AI광주미래교육박람회’에서 ‘광주 소프트웨어(SW) 미래채용사업’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홍보 부스는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으며, 광주의 AI·SW 교육 역량을 한눈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보관은 GICON이 주관하고 유메이커스가 참여했으며, ‘AI 세상이 더 가까이! AI와 놀며 배우자, AI 어드벤처’를 주제로 최신 AI 기술과 융합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광주 SW미래채움사업은 지역 내 AI·SW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강사들이 초·중등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AI·SW 교육

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남구 SW미래채움센터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방문에 다양한 미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실습형 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홍보관에서는 ‘AI 메이커스’, ‘AI 역량 어드벤처’, ‘AI 창작스튜디오’, ‘AI 미래교실’ 등 다양한 참여형 체험 콘텐츠가 제공됐다. 학생들이 놀이처럼 AI를 접하면서 기술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흥미와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잡았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유메이커스 관계자는 “이번 홍보관을 통해 많은 교육 관계자와 시민들이 광주 SW미래채움사업의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AI 시대가 요구하는 지역 인재 양성과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코스닥, 장중 시가총액 500조원 ‘터치’

정부 정책·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 기대감 반영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정부의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 의지 표명에 따른 기대감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조원 고지를 넘어섰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은 장중 500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지난 6월 11일 406조7165억원으로 400조원대 가 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다만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가 하락 전환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499조2416억원으로 다시 내려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웠던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6월 4일부터 10월 말까지 코스피는 48.24% 오르 반면에 같은 기간 코스닥 상승률은 20.02%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코스닥에서 몸집을 키운 기업들이 코스피 시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적잖아 코스닥은 ‘코스피 2군’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실제로 엔씨소프트, 네이버, 셀트리온 등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다.

코스닥 시장이 저평가되는 이유로는 높은 변동성과 신규 혁신 기업의 부채 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하순 들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코스닥은 종가 기준 지난달 26일 877.32에서 이날 929.83으로 5.99%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 1.71%를 크

게 웃돈다.

최근 코스닥의 강세 배경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와 연기금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솟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 검토 중이나 코스닥 시장 대책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가 관련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정부의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 의지도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다. 코스닥 시장은 혁신 벤처기업에 대한 공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이 코스닥을 떠나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점은 한계로 지목된다.

알테오젠은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해 한국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했다고 지난 9월 29일 홈페이지에 공지했고, 이르면 오는 8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코스피 이전 상장 신청 철회를 공시했던 시가총액 2위 에코프로비엠도 이전 상장 재추진을 저율질하고 있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 최초 군 단위 금융복지상담소 안착

금융복지상담센터 해남상담소 개소 8개월 만에 669건 상담

전남 금융복지상담센터 해남상담소가 오픈 8개월 만에 금융복지상담 669건을 돌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4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 3월 금융복지 전문상담사가 상주하는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해남상담소’를 개소했다.

해남상담소는 기존 목표와 순천에 상담센터를 거리상의 문제로 방문의 애로를 겪는 남부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소 후 8개월이 지난 해남 상담소는 지난 11월 말 기준 해남군 등 인근 5개 군 지역민을 대상으로 총 669건의 금융복지상담과 29건 33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통한 부채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5개 군 지역민이 목표의 서부센터를 이용하던 작년 동기 대비 상담 건수의 50.7%, 채무조정 건수의 52.6%가 증가한 수치다. 그동안 금융복지 사각지대에서 과다부채로 고통받던 남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해남상담소가 단기간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로 해남군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꼽았다. 상담소 설치 논의 단계부터



상담공간 제공, 지역민 홍보, 행정적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전남 최초 군 단위 금융복지상담소를 안착시킬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금융복지상담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남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금융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해남상담소의 성공적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금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맞춤형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